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음 10월 5일) 제28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스마트관광 1번지'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새 디지털 관광 콘텐츠 서비스 모델 개발로 관광산업 어려움 극복

를 획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광매력을 증대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관광의 구성요소를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 등으로 구성하고, 스마트관광 구성요소들을 활용해 관광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모바일 하나로 관광의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282호에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마트관광 1번지, 전북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스마트 체험관광 1번지 구축을 위한 '스마트 경험과 편의제공', 전북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비스 연계 및 공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 스마트관광 추진과제에서는 ▲디지털 실감콘텐츠 구축, ▲스마트 관광지원 서비스, ▲AI기반 관광·교통(Double-T) 서비스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객 행태 분석 고도화,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대응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드코로나 시대 스마트관광 선도 지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관광콘텐츠, 관광인프라, 관광지원 서비스, 관광교통, 관광데이터 등 스마트관광 5대 요소를 고려해 도내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디지털과 결합시켜 실감형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고, 관광 빅데이터 및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해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자는 주장이다. 김형오 박사(연구책임)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구조, 상품 소비, 정보탐색 과정, 관광행태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경험과 편의제공을 위한 전북도의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 여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광과 ICT 첨단 기술을 결합한 공유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개인의 취향과 자신만의 여행을 설계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료 및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유호상 기자



올해 마지막 회기 제38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가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도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 '우수' | 무주 '산골낭만', 행안부장관 표창

지역 농산물로 만든 '비타민 도시락' 나눔 선한 영향력 펼쳐



풀낭만이 장관 표창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무주 '산골낭만' 팀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비타민 도시락'을 만들어 취약계층, 코로나19 지원봉사자 등에 나눔 행사를 진행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골낭만'은 무주에서 농사를 짓는 11명이 모여 만든 공동체로 청년 농민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무주군 어르신들을 위한 안성면사무소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무

주의료원, 119안전센터, 자원봉사센터, 환경미화원분들까지 총 5회에 걸쳐 릴레이 형식의 추첨을 통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11월 중에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선수진 산골낭만대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다같이 즐겁게 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간식 배달 봉사 활동이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 보람되고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는 청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도 대도위행년과장은 "무주 산골낭만 팀의 수상 축하와 더불어 올해 사업에 참여한 도내 15개 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북의 미래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생산량 대비 가격은 뚝' 고추농가는 읍니다 "최저생산비 보장 위한 정부 수매 절실"

최영일 도의원, 긴급 수매촉구 건의안 발의
"순창서 거래되는 도매가 작년 1만8000원 현재, 작년 도매가 절반도 안되는 7000원 안팎 농식품부 '비축물량 약 1.4t 공급책' 이해 불가"

던 것이 현재는 절반도 안 되는 7,000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북을 비롯해 주요 작물로 고추를 생산하는 몇 곳의 지역에서 정부 수매를 추구하고 있으나, 지난달 농식품부가 내놓은 '김장 채소 수급 안정 정책'에는 풍년기근을 맞은 고추에 대해 비축물량 약 1.4t을 공급"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놨다며 농사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고추 농가에 다친 풍년기근 해결은 물론 매년 상승하는 생산비로부터 적절한 판매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긴급 수매 결정과 중장기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영일 의원이 발의한 '고추 농가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부 긴급 수매촉구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 채택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 비준을 통한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농년기근을 맞은 고추농가를 살리고, 농민들에게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수매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창)은 8일 제386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고추농가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부 긴급 수매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영일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고추 농사 경작 면적이 지난해보다 6.1%(현재 국내 고추 재배면적 약 3만3,373ha로 추곡장 3만3,373개 정도)로 증가했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4.7% 증가했다. 하지만, 가격은 작년 11월 대비



35.8% 하락해 풍년을 맞은 고추농가의 경우 최저생산비 확보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둔화한 가운데 고추 생산량은 대폭 증가했지만, 가격은 폭락해 인건비는 커녕 생산비조차 메꾸기 힘든 실정"이라며 "김장철은 고추판매 대목이지만, 순창에서 최근 거래되는 고추 도매가격은 한근 기준으로 지난해 1만8,000원 하

축전주매일 창간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색 色 오 感 感

순창이 참 좋단다